

제 1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KR010281

한글 성명: 마쓰나가 토모하

나의 도전

고등학교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
을 받았던 나는 주변사람들 모두 당연
히 일본에서 시험을 보고 대학에 진학
한다고 생각했고, 나도 그랬었다. 하지만
문득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. 내가 하고
싶은 것,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다시
생각해 보았을 때, 그 길은 일본대학
진학이 아니었다. 중학생 때부터 한국이
나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스스
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어
공부하고 있었던 나는 언젠가 그 나라
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
다. 누군가에게는 어렵지 않은 유학일지
라도 나에게서는 아주 어려운 결정이고
각오가 필요했다. 어렸을 때 부모님이
미혼을 하시고, 어머니는 우리 5남매를
혼자서 키워 주셨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
가정 속에서, 나에게 유학은 쉽지 않다
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

제 1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KR010281

한글 성명: 마쓰나가 토모히-

우 리 때 문 에 고 성 하 신 어 머 니 에 게 이
말 을 하 는 것 은 더 욱 쉽 지 않 았 다. 하
지 만 여 기 서 포 기 하 면 평 생 후 회 할 것
같 았 다. 그 런 나 의 마 음 을 어 머 니 는 구
신 처 럼 이 미 말 고 있 었 다. '돈 때 문 에
너 가 포 기 할 말 은 없 었 으 면 좋 겠 어. 너
가 진 심 으 로 하 고 살 은 것 을 하 면 돼'
이 려 게 어 머 니 가 나 에 게 말 씀 해 주 신
순 간 나 는 마 음 을 먹 었 다. '도 전 해 보 자'
한 국 유 학 을 결 심 하 고 더 욱 열 심 히 한
주 어 를 공 부 하 기 시 작 했 고, 유 학 비 용 을
모 으 기 위 해 아 르 바 이 트 도 늘 리 고, 자 기
소 개 서 등 필 요 한 서 류 를 준 비 해 드 리
어 한 국 으 로 왔 다.
철 학 자 마 리 스 토 텔 레 스 는 '시 작 이 반 이
다' 라 는 말 을 남 겠 다. 어 떤 일 을 결 심
하 고 행 동 으 로 옮 기 는 그 첫 걸 음 반 으
로 도 이 미 반 은 달 성 했 다 는 뜻 이 다. 이
말 을 결 정 의 순 간 에 서 필 요 한 말 이 다.
살 아 있 어 서 중 요 한 결 정 을 할 해 야 할

제 1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KRo/028/

한글 성명: 마쓰나가 토모카

뻘썩은 시간 내가 망설인 그 사이에 나보다
 누가 먼저 결심하고 도전을 하면 어쩌
 면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. 불안한
 마음과 미래를 극복해야 건널 수 있는
 '도전의 다리'가 내 앞에 있다면, 그
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가기에는 용기가
 필요하다. 굳이 안전하지 않는 다리를
 건너야 되는 것은 아니다. 안전만을 추
 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다리를 건너가는
 삶도 있어도 된다. 어느 쪽의 다리를
 건너갈지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
 은지,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
 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. 어쩌면 나
 는 흔들리는 '도전의 다리'를 건너가고
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. 내가 사는 이유
 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
 못 ~~했~~ 하고 있다. 하지만 확실한 것은
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힘이 되고 싶
 다는 것이다.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
 나를 믿고 응원 ~~해~~ 하고 내 편이 되어 준

제 1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0-KR010281

한글 성명: 바쁘나가 토모라

가 족 이 랑 상 내 결 에 있 었 다. 그 런 가
 족 을 위 해 너 가 해 줄 수 있 는 것 이
 지 금 은 없 더 라 도 언 젠 가 너 가 해 줄 수
 있 는 것 이 생 기 는 날 까 지 나 는 많 은
 노 령 과 도 전 을 하 겠 이 다. 만 약 도 중 에
 다 리 가 무 너 져 떨 어 지 더 라 도 몇 번 이 든
 밀 어 나 서 다 시 한 번 처 음 부 터 다 리 를
 끝 까 지 건 너 가 려 고 도 전 한 다.